

광주, 추가 제출 명단에도 빠진 신천지 3200명 어디에?

시 압박 명단 받아냈지만 파악 신도수보다 적어 공무원·전문직 등 삭제 의혹 연락 두절 28명 소재 파악중

광주시에 신천지를 압박해 신도·교육생 등 4000여명의 명단을 추가로 받아냈지만, 여전히 기존 신도수보다 3200여명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전수 조사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가 명단 제출에 불응하면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으름장을 놔던 광주시는 질병관리본부와 협의해 고발 조치 등을 단행하겠다는 입장이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신천지는 지난 1일 두 차례에 걸쳐 광주 외 거주자 1920명, 학생·유년 신도 2031명, 교육생 57명 명단 등 4008명을 추가 제출했다. 시는 관

의 거주자 명단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학생·유년 신도 조사 여부는 질병관리본부와 협의하고 있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1일 “정부를 통해 전달받은 광주지역 신천지 신도 2만4883명의 명단을 비교해보니 기존에 알려진 인원보다 신도 3835명, 교육생 3375명 등 총 7210명이 적다”면서 명단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으면 사법당국에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이후 신천지측은 추가로 4008명의 신도 명단을 제출했지만, 여전히 3202명이 부족하다는 게 광주시의 주장이다. 광주시가 기존에 파악한 교육생 포함 신천지 신도수는 3만2093명이며, 이날까지 신천지에서 제출한 신도수는 2만8891명이다.

일각에선 신천지측이 공무원 등 공공기관 직원이나 전문직, 대기업 임직원 등 이른바 주요 요직에 근무하는 신도들을 보호하기 위해 임의로 명단을 삭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시는 기존에 확보한 명단을 토대로 전수 조사에 나서 신도 220명, 교육생 14명 등 234명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했으며, 이 중 212명은 음성 판정이 나왔고 나머지 22명은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지난 1일까지 연락이 닿지 않은 교인은 84명이었지만 56명은 확인됐으며 28명은 소재를 파악 중이다. 시는 추가로 확보한 대상자들을 조사하고 1차 전화로 확인한 교인들에 대한 추적 관찰도 지속할 방침이다.

김중호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이날 오후 광주시청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신천지 신도 전수조사와 관련해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신천지 신도수와 통보 받은 신도수가 여전히 3200여명이나 차이가 난다”면서 “질병관리본부와 협의를 통해 신천지측이 제출한 명단의 누락 여부 등을 따져 해명이 되지 않으면 추가 조치가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2일 오후 경기 가평시 청평면 신천지 평화연수원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한 가운데 ‘총회장 특별편지’를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 미확인 신천지 신도 1354명서 92명으로 줄어

경찰 위치 추적 등 신원 확인 신천지 신도 99.4% 조사 135명 ‘음성’ 13명 검사중

전남도가 전남지방경찰청과 협력 체계를 통해 미확인 신천지 신도의 신원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있다. 1354명에 달했던 미확인 신도 수가 92명까지 줄었다.

전남도는 2일 “지난달 26일부터 정부에서 통보 받은 신천지 신도와 연락을 위해 전 시·군의 행정력을 동원했으나, 신도들

의 응답률이 저조해 전남지방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신천지 교단·신도에 누락 신도 제출 및 자진 신고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한 전남도는 120 콜센터로 자진 신고를 유도한 재난문자를 발송했으며, 연락 두절 및 소재 불명자에 대해선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이 조치로 120 콜센터와 시·군으로 자진 신고한 신도가 늘어난데 이어 경찰청에서 위치 추적 등으로 496명의 신원을 확인해 모두 1262명의 연락처를 확보해 상태 확인에 들어갔다.

이 같은 협력 체계 가동으로 전남도는 지난달 26일부터 정부에서 받은 신도와 교육생 1만5681명과 시·군에서 자체 파악한 394명 등 1만6075명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1만5983명(99.4%)의 신도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이 중 유증상자는 148명이며 135명이 음성으로 나머지 13명은 검사 중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교단측은 누락 신도를 포함한 신천지 신도 전체명단을 제출하고, 시·군에서 연락받지 못한 신도는 자진 신고해야 한다”며 “대구집회에 참석한 신도는 무조건 진단검사를 이행하고

대구집회 미참석 신도도 증상이 있는 경우 모두 진단검사를 해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기관·의료기관·사회복지시설 등 고위험군 직업 종사자인 신천지 신도 799명중 유증상자 21명에 대한 검사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명됐고, 고위험군 종사자 전체에 대해 코로나 확산 방지 예방 차원에서 자가격리를 권고 중이다. 전남도는 이들을 대상으로 관할 보건소 전문가가 매일 2차례 이상 증상 유무를 확인하는 등 지속적으로 특별 관리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큰절 두 번 연신 사죄한 이만희 “코로나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진단검사 질의에 엉뚱한 답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주인 이만희 총회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 이후 처음 대중 앞에 나타나 큰절까지 올리며 사죄했다. 그는 정부 방역에 협조하겠다고 거듭 밝혔으나 코로나 감염증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등 현 상황에 대한 안일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총회장은 이날 오후 3시 10분이 넘어 회석 양복 차림으로 기자회견 장소로 예정된 평화의 궁전 중문 앞에 나타나 연신 ‘사죄’를 구했다. 그는 “코로나 사건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 말씀드립니다”며 앉아있던 의자에서 일어나 취재진 앞에서 큰절을 올렸다. 이어 “면목이 없다”, “힘이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거듭 사죄의 뜻을 밝히며 또다시 큰절을 했다.

이 총회장이 두 번 큰절을 했을 때 ‘박근혜 정부’에서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계를 착용한 모습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 총회장은 “정부 당국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 노력해준 데에 너무나 감사하

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었는데 정부가 해준 데 대해 너무나 감사하다”면서 “정부에게 용서를 구한다”고도 했다. 그는 “교회 지도자는 부모와 같고, 성도는 자녀와 같다”면서 “무서운 병이 왔는데 어느 부모가 그냥 보겠느냐. 고치고자 하지 않겠느냐”는 주장도 내놨다.

회견 도중에는 지난 25일 자기 명의로 낸 ‘특별편지’를 손에 들고서 기존 주장을 반복하기도 했다. 이 편지에는 전 성도 명단을 정부에 제공하고 교육생도 코로나 19 검사를 받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총회장은 입장 발표에 이어 취재진으로부터 코로나 진단검사를 언제, 어디서 했느냐는 질문을 받아 엉뚱한 답변을 늘어냈다. 그는 “코로나에 대해서는 이 사람(본인)이 모르고 있다. 검사하라는 연락이 와서 검사를 받았다”면서 “나도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다. 난 음성도 잘 모른다”고 말했다.

이 총회장은 그간 경기권 한 곳에서 자가격리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평화의 궁전 시설에 온 뒤로 시설 안과 밖을 왔다 갔다 했다고 말했다 주변 직원 만류에 막히기도 했다. /연합뉴스

광주시·전남도 경증환자 치료할 ‘생활치료센터’ 확보

시, 소방학교·5·18교육관 도, 산하 기숙사 등 3곳 검토

광주시와 전남도가 정부 방침에 따라 병원 내 병상부족 현상이 발생할 경우 경증환자에 대해선 ‘생활치료센터’로 격리·치료하기로 했다. 시는 광주소방학교와 5·18 교육관 등을 생활치료센터로 활용할 방침이다. 수용 가능 인원은 총 104명이다. 도는 산하 및 관련 기관의 기숙사시설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2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일자로 치료가 절실한 중증환자는 대형병원에 우선 입원시켜 적절한 진료를 받도록 하고, 상대적으로 증세가 가벼운 환자는 별도 격리시설인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도록 대응체계를 전환했다.

생활치료센터에는 전담의료진이 배치돼 시설 내 확진자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증상이 악화한 환자는 병원으로 이송된다. 병원내 치료병상이 턱없이 부족한 대구시는 이날부터 첫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들어갔다.

광주시는 병원 내 병상부족 사태가 빚어

지면, 경증환자에 대해선 생활치료센터로 재배정할 방침이다. 경증환자는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높은 만큼 소방청 구급차로 개별 이송된다.

전남도는 각 시·군으로부터 생활치료센터 후보 시설 명단을 제출받아 대상지 선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정부 지침에 따라 1인 1실, 의무·행정실, 폐기물 처리실 등을 갖춘 수 있는 전남도 산하 기숙사 등 시설을 검토중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오늘 내려온 지침에는 생활치료센터 시설 수, 수용자 규모, 지정 완료 시기 등이 담겨있지 않은 상태”라며

“시설들을 검토해 중부권, 동부권, 서부권이 이렇게 3곳에 생활치료센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입소한 환자들은 체온 측정과 호흡기 증상 등 일 2회씩 자가 모니터링을 시행하며, 건강 상태에 변화가 있으면 의료진 진료를 받게 된다. 센터에는 전문 의료 인력이 상주한다. 정부는 센터내 환자에게 체온계와 필수약품 등이 들어있는 개인 위생 키트와 속옷, 세면도구, 마스크 등이 포함된 개인구호 키트를 제공한다. 식사와 간식도 무료로 제공한다. 센터에는 의무실이 설치되고, 의료진을 위한 레벨D 방호복과 방역용 마스크, 라텍스 장갑 등 의료물품도 배치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의료광고심의필 제 191202-중-102255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목, 허리 디스크 치료

신경치료, 프롤로치료, 도수치료, 디스크 견인치료, 고주파치료

인생의 기둥 “목, 허리” 휘게 놔두지 마세요.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